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힌다.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4월 1일)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 코로나 구호 3배 증가 불자 자비실현 빛났다

### 아름다운동행 '2020연차보고서' 살펴보니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한해, 갖은 어려움에도 불자들의 자비행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기부가 힘들어진 상황에서도 방역물품 등 현물기부와 구호기금 전달은 코로나 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

아름다운동행(상임이사 일화)은 4월 26일 동행 홈페이지를 통해 '2020연차보고서'를 공시했다. 아름다운동행의 2019년 대비 사업을 보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전달 및 구호활동이 눈부셨다. 2020년 3월 12일 대구와 경북지역에 생수 20만 병과 성금 2억 6000만 원을 전달했고, 3월 19일에는 동국대 의료원에 1억 원을 전달했다. 또 마스크 20만 장을 위기에 처한 곳에 긴급 지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7월 30일과 31일에는 코로나19 장기

**전체모연 130% 증가 쾌거**
**구호 부문 12억여 원 확대**
**2019년 비교해 190% 늘어**

**미얀마 돕기 등 새로 시작**
**일반기부 감소는 '옥의 티'**
**"정기 후원 증대도 힘써야"**

화로 고통 받는 호남지역에 7000만 원을 지원했고 불자가장 및 종립학교 중고등학생 260명에게 총 78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코로나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 상황에서도 불자들의 자비행은 빛났다. 폭우 피해 속에 이어진 불자들의 성원으로 아름다운동행은 구례 화엄사에 조계종 실무팀과 함께 거점을 만들고 찾아가는 짜장공양 푸드트럭을 이용해 3000인 분의 짜장도시락과 4000만 원 상당의 식료품 구호키트 2000세트를 구례군 등에 전달했다. 이후에는 수해복구가 필요한 곳 41개소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연차보고서 운영성과를 보면 특히 구호와 방역물품 등 현물기부가 눈길을 끈다. 기금 모연을 의미하는 사업수익은 2018년 총 47억 4108만 원에서 2019년 총 54억 2402만 원으로 14.4%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총 125억 804만 원으로 전년대비 130.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계종이 진행하는 백만 원력 결집불사인 지정기탁 부분에 94억 원이 답지한 것이 컸다. 더불어 2019년 4억 3833만 원이었던 구호기금이 12억 7146만 원으로 전년대비 190% 증가했고, 현물기부 또한 2019년 4억 4123만 원에서 9억 9221만 원으로 전년대비 124.8%로 증가한 것도 주요원인으로 파악됐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불자들이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원력을 모아 준 결과"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자들의 성원 하에 아름다운동행은 다양한 구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돕기 위한 미얀마 현지와 국내 미얀마인 돕기에도 나서고 있다. 소외계층 연탄 후원인 아이연탄맨, 초등학교 입학생 책가방보내기, 아동·청소년꿈 지원 위시박스 후원, 개안수술 후원 등 국내 지원과 탄자니아 아동영양지원, 보리가람농업기술대 발전기금 등 해외후원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지정기탁과 구호, 캠페인 모금 등이 늘고 있는 성과에도 아름다운동행 활동 자체를 후원하는 일반기부가 소폭 감소한 부분은 '옥의 티'다. 2018년 일반기부는 7억 1391만 원에서, 2019년 7억 7939만 원에 이어 2020년 6억 2281만 원으로 감소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재난상황에서의 기부 확장기에 장기적인 계획 하에 고정후원 증대도 함께 이뤄야 한다. 아름다운동행이 불교계 대표 기부처로서 알려질수록 일시적 기부 외에 정기후원 같은 일반기부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연차보고서에서 "코로나19 기간은 화엄경 인드라망처럼 온 인류가 하나로 연결돼 있고,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불교는 이미 답을 갖고 실천하고 있다. 남을 이롭게 하며 자신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의 삶이 진실로 필요한 때"라며 불자들의 자비실천이 불법홍포 뿐만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이끌 원동력임을 강조했다.



**아기부처님 오시다** 조계사는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5월 5일,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관불의식 입재식을 봉행하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투심을 찬탄했다. 입재식은 주지 지현 스님이 대웅전 상단에 모셔진 아기부처님을 관불대로 이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아기부처님께 배례를 올린 뒤 욕불게, 정근이 이어진 후 관불의식이 진행됐다. 관불의식은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실 때 아홉 마리의 용이 향기로운 물로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켰던 일에서 유래한다. 조계사는 매년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고 각자의 마음 속 탐욕과 번뇌를 씻어내고자 관불의식을 마련하고 있다. 대중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19일까지 동참할 수 있다. 사진은 주지 지현 스님이 관불하는 모습.
글·사진=박재완 기자

## 부처님오신날 특별방역 지침 시달

**조계종, 3일 전국사찰에 하달**
**법회시 2m 개인간격 유지해야**

조계종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전국사찰에 하달했다.

조계종은 5월 3일 '부처님오신날 특별방역 지침'을 발표하고 개인간 거리두기 및 전각별 실내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재차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봉축, 초하루, 일요법회 등 대면 행사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개인간격을 유지하고, 지자체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각 전각별 실내 참석 수용 인원을 제한한다. 또 법회 등에 야외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야외는 개인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한다. 각 전각별 내부 바닥에는 이용자간 사회적거리두기 간격을 표시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사찰 대중공양도 올 부처님오신날엔 없을 전망이다. 사찰 상주대중 공양을 제외한 신도 및 외부인의 대중공양은 일체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사찰 내 상주 대중들은 일상 중에도 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는 기도, 예불 집전 및 동참 시에도 적용된다.

조계종은 또 사찰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및 발열 체크를 실시토록 했으며,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날을 대비해 지자체에 문의해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이와 함께 사찰 상주대중의 유증상 발생시 즉시 조치, 사찰 상주대중 공양시 지그재그로 자리를 배치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음수대 운영 중단도 권고했다.

이밖에 장례의식(49재, 제사 등)은 실내 참석 인원을 개인간격을 유지하고,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지자체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각 전각별 실내 참석 수용 인원을 제한토록 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 진제 종정예하, 자비나눔 기금 1천만 원 쾌척

**동행에 전달… 2011년부터 매년 자비나눔행**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나눔기금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에 따르면 진제 법원 대종사〈사진〉은 최근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진제 스님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부처님오신날과 연말연시에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자비나눔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아름다운동챙 측은 "종정예하는 평소 법문을 통해 나를 찾는 참선 수행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대비의 신행을 강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제자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며 "아름다운동행은 종정예하의 뜻을 받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종단의 가장 큰 어른스님께서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어려운 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며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항상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송지희 기자